

# 쾌청한 새해 첫날...광주 곳곳 해돋이 행사

### 해넘이·해돋이 관람 이상무 기온 뚝...따뜻한 옷차림 필요 떡국 나눔·풍물패 공연 등 다채

광주·전남에서는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따르면 쥐띠 해인 새해 첫 날 광주·전남은 확실한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아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광주와 여수, 목포, 완도 등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새해 첫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 31일 오후 5시30분 해가 져다가 다음날인 내년 1월 1일 오전 7시41분 새해 첫해가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광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5도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새해 전날인 31일부터 5km 상공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통과해 기온과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맞이·해돋이를 보려면 따뜻한 옷차림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광주지역 곳곳에선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광주 5개 자치구 등은 다사다난 했던 '기해년'(己亥年) 마지막 날을 정리하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날을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해돋이 행사를 준비 중이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1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무등산장(무등산국립공원 원효분소), 매곡산 입구, 근왕봉(두암체육공원), 한새봉(한새어린이공원), 삼각산(현

대1차아파트) 등 5곳에서 해맞이 시민을 대상으로 떡국 나눔, 커피 나눔, 봉사활동을 펼친다.

동구는 같은 날 오전 6시30분부터 화순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광주시 동구 선교동 옛 너릿재 정상(체육센터)에서 시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새해 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새해 첫날 광주 대표 해돋이 명소인 금당산에서도 떡국 나눔을 비롯해 풍물패 공연, 드론 축하 비행 등이 준비돼 있다.

서구는 1일 새벽 5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금당산 인공폭포 광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서구 새마을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떡국과 차(茶)를 제공한다. 남구도 같은 날 오전 6시부터 금당산 정문과 금당산 들머리 중 하나인 태현사 입구에서 '2020년 금당산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남구는 떡국과 차를 제공하고 새해 출발을 기원하는 드론 축하 비행 등도 선보인다. 앞서 금당산 정상에선 주민의 건강 등을 기원하는 연날리기와 풍물패 공연도 볼 수 있다. 다만 매년 진행한 소망풍선 날리기는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광산구도 같은 날 새벽 5시부터 광주역대 주차장(등산로 입구)에서 해돋이를 보러 온 시민에게 떡국과 따뜻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오월단체 및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시민과 함께 하는 합동참배 및 시무식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새해 다음날인 2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5·18국립묘지 민주의 문 앞 집결해 시무식을 진행한 뒤 시민과 떡국을 나눠 먹기로 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겨울비 속 더 찬란한 동백꽃  
겨울비가 내린 29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 도로의 동백꽃 울타리 앞을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걷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국제행사 외연 확대 모색 충장축제 재도약 TF 출범

광주 동구는 '추억의 충장축제' 발전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전담팀(TF)을 꾸렸다고 29일 밝혔다. 축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내년 충장축제의 외연 확대와 특화 방안, 도심 퍼레이드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다움'을 행사에 담아 충장축제가 국제적인 거리축제로 도약하도록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구는 올해 충장축제 마무리 후 부서별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현장 참여자 간담회, 결과 보고회, 협업 회의 등을 열어 성과와 과제 등을 고민해 왔다.

동구는 TF 조연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충장축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 옛 광주교도소 발견 유골 40구 5·18단체 매장 경위 수사 의뢰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신원미상 유골 40여구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5·18단체는 매장 경위 등을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9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단체는 "신원 미상 유골의 관리기록이 없는 이유와 유골이 매장된 경위를 밝혀달라"며 30일 광주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8단체, 320일 만에 국회앞 농성 중단

"출범한 진상조사위 지원나설 터  
21대 국회 개원하면 농성 재개"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이후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온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하 5·18 농성단)이 320일 만에 농성장을 절거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해 온 농성단은 지난 28일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과 출범을 계기로 농성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성 중단 뒤에는 진상조사위 활동을 지원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전막을 치고 입법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농성단은 "최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암매장 의심 유골 40여구가 발견되는 등 진상규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앞으로 5·18 진상 규명 국민 지원단을 꾸려 투쟁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국회를 찾아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 재산환수특별법 입법 투쟁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달뜨기 10:37, 해질 17:29, 달질 21:19

구름긴 하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주	흐림	7/11	보성	흐림	2/12
목포	흐림	8/10	순천	가끔흐리고비	5/13
여수	가끔흐리고비	7/13	영광	흐림	6/10
나주	흐림	5/12	진도	흐림	7/12
완도	흐림	8/13	전주	흐림	6/11
구례	가끔흐리고비	2/12	군산	흐림	5/10
강진	흐림	5/13	남원	흐림	2/10
해남	흐림	4/12	흑산도	흐림	9/11
장성	흐림	6/12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안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	1.0~3.0
	면바다(북)	서~북서	1.0~2.0	북서~북	2.0~4.0
	면바다(남)	서~북서	1.0~2.0	북서~북	2.0~4.0
남해서부	안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	0.5~1.5
	면바다(서)	서~북서	1.5~2.5	북서~북	2.0~4.0
	면바다(동)	서~북서	1.0~2.0	북서~북	1.0~3.0

◇생활지수

- 보통
- 감기
- 보통
- 뇌졸중
- 보통
- 미세먼지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각	수치	시각	수치
목포	09:42	0.4	04:21	2.1
	22:26	0.4	17:09	2.1
여수	05:07	0.4	11:49	2.1
	17:55	0.4	23:45	2.1

◇주간 날씨

날짜	1/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날씨	☁	☁	☁	☁	☁	☁
기온	-3/1	-4/6	-1/8	0/8	1/8	-1/8
강수량	0/8	0/8	0/8	0/8	0/8	0/8

### 광주교육청, 학원 강사 예술고 검직 제한

내년부터 광주에서 학원 강사들이 예술고 전문 교과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예술고는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로, 진학이 균형 잡힌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유명 학원 강사를 방과후 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실기 지도를 관리하는 손기능보다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안무, 작곡 등 포트폴리오 상품 판매를 부추길 우려가 크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코레일 "화순 직원 극단 선택 직장 괴롭힘 아니다"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감사를 벌인 코레일이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자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은 29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A씨의 사망 사건은 괴롭힘 등 직장내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화순군 철도공사 시설 주차장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3월부터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10월 회사의 갑작스런 인사 발령을 거부했다.

A씨의 항의로 인사가 철회된 이후 회사 내에서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지 말고 일하라", "사업소 내 대나무를 잘라 내 트럭에 실어 놓으라"는 등의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